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김성봉^{1*}, 장정임¹

¹제주대학교 교육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ress Coping Behavior and Gambling Addiction: Mediating effect of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Sung-Bong Kim^{1*}, Jung-Im Jang¹

¹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매개로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고등학생 37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회귀분석 4단계를 거쳐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중심 대처는 도박중독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정서 중심 대처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문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정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높임으로써 도박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기술을 향상시키고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것이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dolescents' stress coping behavior on gambling addiction using the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as a mediating variable. For thi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377 high school students in Jeju. Data processing analysis of the research was verified by Baron & Kenny's regression analysis in 4 phases and a Sobel Test was done to verify the significance level on the mediation effect. The stud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ile problem-focused coping had a negative (-) correlation with gambling addiction, emotion-focused coping had a positive (+) correlation with gambling addiction. Second, the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had no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focused coping and gambling addiction. Third, the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had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focused coping and gambling addiction. In conclusion, emotion-focused coping under stress situations would enhance the gambling behavior by increasing the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o improve the adolescents' stress coping skills and rationally correct their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which will be helpful in preventing adolescents' gambling addicti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together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 emotion-focused coping, gambling addiction,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problem-focused coping, stress coping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 Sung-Bong Kim(Jeju National Univ.)

Tel: +82-64-754-2166 email: edutopia@jejunu.ac.kr

Received March 30, 2016

Revised (1st April 5, 2016, 2nd April 6, 2016)

Accepted April 7, 2016

Published April 30, 2016

1. 서론

사행산업이 인터넷 환경과 접목되면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도박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도박 경험률은 73%~92.5%로 높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지만 가끔 하는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 도박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2, 3]. 그러나 청소년들의 4~9%가 매우 심각한 도박문제를 보이고 남자 청소년들인 경우 그 비율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4, 1], 그리고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도박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5, 6]은 청소년 도박은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중차대한 문제임을 극명히 보여준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심리학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신체변화,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오는 혼란, 또래집단과의 갈등과 관련된 스트레스,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스트레스, 대학입시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매우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장기간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경우, 흡연, 알코올, 폭력, 가출, 자살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강하며[7],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는 중독과 관련된 주요한 위험요인[8, 9]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도박중독이다.

Gupta와 Derevensky[10]는 청소년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가 일상의 문제와 스트레스로부터 도피하는 한 형태로 도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주[11]와 남전아[12], 김영경[7]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밖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도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13, 14].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비행 및 중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약하고 충동적이고 부적응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표출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15].

한편, 동일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에 따라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에 차이가 있다[16]는 연구결과가 있는 데, 이는 스트레스 자체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오기보다는 스트레스

를 주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 하느냐 하는 것이 심리사회적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 기제 및 능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상황 대처 방식과 도박중독 간에 상관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도박중독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중요성은 Sharpe와 Tarrier[17]의 법칙 발견적(heuristic)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모형은 병리적 도박의 유발과 지속을 설명하는 가장 포괄적인 인지행동 모형 중 하나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도박문제 유발은 빈약한 대처기술로 중재되며 이로 인해 도박자는 도박을 과도하게 지속하게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 알코올 남용, 재정적 어려움의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도박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을 때 역기능적 대처로서 병리적 도박 행동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도식으로 굳어지게 되면 도박장면에서 승패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도박을 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불가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인 대처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반면 부적응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 수단으로서 도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18]. 스트레스 대처를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공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했을 경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우울 등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별반 이견을 보이지 않으며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19]. 이를 통해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도박중독과의 관계 연구를 통해 도박중독 경로를 이해하고 예방 및 치료적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한 대표적 이론으로 Lazarus와 Folkman[20]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 적응 이론(Stress Coping Adaptation Theory)을 들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스트레스원이 직접적으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평가를 거쳐 내린 결정이 대처행동을 통해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이들은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개인이 취하는 대처행동을 크게 문제중심 대처(problem-focused coping)와 정서중심 대처(emotion-focused coping)로 나누었다. 문제중심 대처는 개인이 문제행동을 변화시키든지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의 근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중심 대처는 문제해결이나 개인과 환경 간의 갈등적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책략들이 포함된다. 정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정서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정서중심 대처에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회피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상황의 긍정적 측면에 선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정서적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책략이 주로 사용되며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도 이에 포함된다. 이상과 같이 스트레스 대처 행동이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영향력을 확인하는 작업만으로는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 개입의 초점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 대처 행동이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작용하는 심리적 영향요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한다면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개입 방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의 하나로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상정하려고 한다.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병적 도박의 발병과 유지에 중요한 심리적 역할[21]을 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신념은 ‘도박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갖는 잘못된 인지적 기대 혹은 사고’이다[22]. 병적 도박자들은 자신들이 돈을 때는 것은 도박기술이 뛰어나서 그런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돈을 잃은 것은 운이 나빠서 그런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21, 23]. 결국 병적 도박의 문제는 잘못된 인지적 기정과 기대인 것이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은 사람일수록 중독 수준이 높고,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22, 24, 25], 이와 같이 인지적 기대가 상시적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이유와 계속된 손해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지속하게 하는 과정을 잘 설명한다는 점에서[26]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에 따라 도박행동을 선택할 수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 도박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려고 한다. 여기서 스트레스 대처 행동은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대상 표집은 제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0개 고등학교에서 5개교를 추출한 후 학교별 학년 당 1개 학급씩 무작위 추출하여 실시한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4년 11월 ~ 12월 사이에 해당 학교에 배포한 설문지 500부 중 410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82%), 이 중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해 377부가 최종 분석 자료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77)

Spec	n	%
Gender	Male	203 53.8
	Female	174 46.2
Grade	1	176 46.7
	2	157 41.6
	3	44 11.7
Gambling addiction level	nonproblem gambling	204 54.1
	low-risk gambling	87 23.1
	moderate-risk gambling	67 17.8
	problem gambling	19 5.0
All	377	100

2.2 측정도구

2.2.1 스트레스 대처 행동 척도

Carver et al.가 개발한 COPE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4]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제중심 대처 6문항, 정서중심 대처 6문항 총 12문항의 4점 척도(1점~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대처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hronbach's α 는 문제중심 대처 .841, 정서중심 대처 .712였다.

2.2.2 도박중독 선별척도

Ferris와 Wynne이 개발한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7]가 타당화한 K-CPGI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4점 척도(0점~3점)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도박중독의 정도가 심한 것이다. 본 연구의 Chronbach's α 는 .819였다.

2.2.3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

Steenbergh의 The Gamblers' Beliefs Questionnaire

및 Langer의 통제력 측각 척도를 번안해 이홍표가 타당화한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를 권선중 등[28]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5점 척도(1~5점)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음을 나타내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21였다.

2.3 자료처리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각 변인 간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분석은 Baron & Kenny[29]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Sobel test[30]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여기서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2단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3단계: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때 3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완전매개효과(perfect mediating effect)가 있다. 반면 3단계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가 유의하고 2단계에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보다 작게 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변인 간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계수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문제중심 대처는 도박중독 ($r=-.116, p<.01$)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정서중심 대처는 비합리적 도박신념($r=.127, p<.01$) 및 도박중독 ($r=.090, p<.05$)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할수록 도박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다는 결과이다.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도박중독과 정적 상관($r=.288, p<.01$)을 보여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을 수록 도박중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main variables (N=377)

Variable	1	2	3	4
1. problem-focused coping	1			
2. emotion-focused coping	.271**	1		
3.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002	.127**	1	
4. gamble addiction	-.116**	.090*	.288**	1
M	2.65	2.17	2.49	1.25
SD	.53	.49	.86	2.52

* $p<.05$, ** $p<.01$

3.2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도박중독과의 관계

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3.2.1 문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문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인 [Table 3]을 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문제중심 대처가 매개변인인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002$).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문제중심 대처가 종속변인인 도박중독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116, p<.01$).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비합리적 도박신념($\beta=.288, p<.001$)과 독립변인인 문제중심 대처($\beta=-.116, p<.01$)가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였다. Baron과 Kenny[29]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에 근거하여,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문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매개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The mediating effect of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focused coping and gambling addiction (N=377)

independen stage	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2	F
1	problem- focused coping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003	.073	.002	.035	.000	.001
2	problem- focused coping	gamble addiction	-.553	.211	-.116	-2.672	.013	6.899
3	problem- focused coping	gamble addiction	-.555	.202	-.116	-2.753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097	27.132

* $p<.05$, ** $p<.01$, *** $p<.001$

3.2.2 정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정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Table 4]를 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정서중심 대처가 매개변인인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127, p < .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정서중심 대처가 종속변인인 도박중독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88, p < .05$). 마지막 3단계 회귀 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이($\beta = .282, p < .001$) 유의미하였고, 독립변인인 정서중심 대처가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력($\beta = .052$)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정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focused coping and gambling addiction

(N=377)

stage	independen t variable	dependen t variable	B	SE	β	t	R^2	F
1	emotion-focused coping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222	.077	.127	2.890 ^{**}	.016	8.353 ^{**}
2	emotion-focused coping	gamble addiction	.447	.225	.088	1.989 [*]	.006	3.957 [*]
3	emotion-focused coping	gamble	.265	.218	.052	1.217		
	irrational addiction	gamble					.086	23.868 ^{***}
	belief of gambling		.821	.125	.282	6.592 ^{***}		

* $p < .05$, ** $p < .01$, *** $p < .001$

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인 [Table 5]를 보면, 정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2.65, p < .01$).

Table 5. Results of Sobel test

route	a(SEa)	b(SEb)	Zab
emotion-focused coping -->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222(.077)	.840(.124)	2.65 ^{**}
gamble addiction			

** $p < .01$

4. 논의 및 결론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를 논의하면 첫째, 문제중심 대처는 도박중독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정서중심 대처는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계획적인 문제해결,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요청, 정보수집 등 스트레스 유발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거나 변화시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청소년일수록 도박중독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회피, 최소화, 거리두기, 부정적 사건에서 억지로 긍정적 가치 찾아내기와 같은 전략들을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을 조절하는 형태의 대처행동을 하는 청소년일수록 도박중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도박중독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도박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갖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도박에 중독될 위험성이 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들[7, 22, 23]을 지지하고 있다.

셋째, 문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는 없었으나 문제중심 대처는 도박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거나 단순히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도박중독의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제중심 스트레스 대처기술을 가르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처치하는 것은 이들의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정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정서중심 대처가 도박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높임으로써 도박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워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정서중심 대처를 하는 도박 집단이 문제중심 대처를 하는 도박집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도박에 소비하였다는 최우립[31]의 연구결과와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도박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들[7, 24, 25]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중심 대처는 도박중독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정서중심 대처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매개로 도박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문제중심 대처기술을 향상시키고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박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은 향후 연구과제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상정한 비합리적 도박신념 외의 심리적, 사회적, 신경생물학적 요인들도 함께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청소년의 정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처음 검증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미를 들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도박중독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도박중독 선별척도의 합산점수를 토대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선별척도는 비문제성, 저위험, 중위험, 문제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척도인 데 추후연구에서 이와 같은 4수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매개효과를 검증해 본다면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보다 정교하고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J. I. Jang, S. B. Kim. "A Survey Research on Adolescent Gambling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Gambling Addiction in Jeju A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 3, 113-139, 2014.
- [2] P. Gupta, J. L. Derevensky, "Adolescents with gambling problems: From research to treatment.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6, 315-342, 2000.
DOI: <http://dx.doi.org/10.1023/A:1009493200768>
- [3] H. J. Shaffer, M. N. Hall, "Estimating the prevalence of adolescent gambling disorders: A quantitative synthesis and guide toward standard gambling nomenclature",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2, 193-214, 1996.
DOI: <http://dx.doi.org/10.1007/BF01539174>
- [4]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Program Development for Gambling Addiction Prevention-for a youth",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009.
- [5] M. Griffiths, "Factor in problem adolescent fruit machine gambling: Result of small postal survey, *Journal of Gambling Studies*, 9, 1, 31-45, 1993.
DOI: <http://dx.doi.org/10.1007/BF01019923>
- [6] J. K. Kweon, "A Study on Youth Internet Gambling Game Behavior and Policy Suggestion",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2011.
- [7] Y. K. Kim, "Mediational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and Irrational Gambling Belief on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s' Stress and Gambling Behaviors in Present and Futur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4, 1, 175-195, 2012.
- [8] L. Steinberga, A. Tremblaya, M. Zacka, U. E. Bustoa, L. A. Zawiertailoa, "Effects of stress and alcohol cues in men with and without problem gambling and alcohol use disorder",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19, 1-2, 46-55, 2011.
- [9] E. Tschibeli, I. Elman, "Gender differences in psychosocial stress and its relationship to gambling urges in individuals with pathological gambling", *Journal of Addictive Diseases*, 30, 81-87, 2011.
DOI: <http://dx.doi.org/10.1080/10550887.2010.531671>
- [10] P. Gupta, J. L. Derevensky, "Adolescents gambling behavior: A prevalence study and examination of the correlates associated with problem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4, 319-345, 1998.
DOI: <http://dx.doi.org/10.1023/A:1023046509031>
- [11] H. J. Kim,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gambling behavi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2009.
- [12] J. A. Nam, "The Mediating Effect of Impulsive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Adolescent Gambling Behavior", *Clinical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0.
- [13] A. N. Berge, R. H. Pietrzak, N. M. Petry, "Pre/early adolescent onset of gambling and Psychosocial problem in treatment-seeking pathological gambler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2, 3, 263-274, 2006.
DOI: <http://dx.doi.org/10.1007/s10899-006-9015-7>
- [14] J. I. Jang, I. N. Yoon, S. B.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and Gamble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Test of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 11, 101-123, 2014.
- [15] J. S. Hahm, M. H. Hyun, Y. S. Lim, "The effect of Stress, Significant others' smoking and smoking belief on smoking behavior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 1, 191-207, 2006.
- [16] Y. I. Ka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ttach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to Mothers and theirs Psychosocial Adjustments: The Intervening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es and Negative Coping Mechanism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2012.
- [17] L. Sharpe, N. Tarrier, "Towards a cognitive-behavioral theory of problem gambling ", *British Journal of*

- Psychiatry, 162, 407-412, 1993.
DOI: <http://dx.doi.org/10.1192/bjp.162.3.407>
- [18] Coman, Burrows & Evans, "Stress and anxiety as factors in the onset of problem gambling: Implications for treatment", *Stress Medicine*, 13, 235-244, 1997.
DOI:[http://dx.doi.org/10.1002/\(SICI\)1099-1700\(199710\)13:4<235::AID-SMI748>3.0.CO;2-4](http://dx.doi.org/10.1002/(SICI)1099-1700(199710)13:4<235::AID-SMI748>3.0.CO;2-4)
- [19] A. G. Billings, R. A. Moos, "The role of coping responses and social resources in attenuating the stress of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157, 1981.
DOI: <http://dx.doi.org/10.1007/BF00844267>
- [20] R. S. Lazarus,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McGraw-Hill, 1984.
- [21] T. Toneatto, "Cognitive psychopathology of problem gambling", *Substance Use and Misuse*, 34, 1598-1604, 1999.
DOI: <http://dx.doi.org/10.3109/10826089909039417>
- [22] H. P. Lee, "The Relationship of Irrational Gambling Belief, Gambling Motive, and Risk Taking with Pathological Gambling",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002.
- [23] R. Ladouceur, & R. Walker, "A cognitive perspective on gambling", In PM Salkovskis (Ed), *Trend in Cognitive and Behavioral Therapies* (pp.89-120), NY: John Wiley & Sons Ltd, 1996.
- [24] J. N. Yang, E. J. Choi, M. H. Lee, Y. So, "Depression, Impulsive Behaviour and Family Health Factors Affects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and Gambling Behaviour of Young Peopl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 5, 357-383, 2011.
- [25] H. Y. Lee, D. H. Lim, H. W. Kim, "The Effects of Impulsiveness, Stress, Gamblers' Beliefs, and Parents Attachment on Gambling of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 3, 257-285, 2014.
- [26] I. H. Yi,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Casino Gambling Activities, Gender, Gambling Problem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a Korean Casino Gambler Sample: Cognitive and Personality Determina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 2, 351-378, 2004.
- [27]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Study on Gambling use",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010.
- [28] S. J. Kwon, K. H. Kim, J. O. Choi, "Awareness of Gambling and Predictors of Gambling Behavior in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 1, 147-162, 2006.
- [29] M. A. Baron, D.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 [30] M. Sobel,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290-31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82.
DOI: <http://dx.doi.org/10.2307/270723>
- [31] W. R. Choi, "The Effect of Stress and Coping on Gambling Behaviors: Affinity to Pathological Gambling and Chasing",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7.

김 성 봉(Sung-Bong Kim)

[정회원]



- 1994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도박증독, 긍정심리학

장 정 임(Jung-Im Jang)

[정회원]



- 2009년 8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 2014년 8월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06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관심분야>

교육심리, 상담심리, 도박증독